

# 서울의 서사, 미디어아트로 만나다

## 2024 딜라이트 서울

글 이승열 사진 조채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전시, ‘딜라이트 서울’이 3년 만에 국내 관람객 앞으로 찾아왔다. 다양한 콘텐츠와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까지. 서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실감 나는 미디어아트로 즐길 수 있는 2024 딜라이트 서울 전시 현장을 소개한다.



## 세계서 인정받은 전시, 다시 서울에서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재해석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 '2024 딜라이트 서울'이 지난 12월 문을 열었다. 2021년 처음 대중에 공개된 딜라이트 서울은 당시 대한민국과 서울의 이야기를 현대적인 예술로 풀어내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그 관심은 해외로 퍼져나갔다. '딜라이트 전시(Delight Exhibition)'라는 이름 아래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UAE 두바이 ▲영국 런던 등 세계 각국에서 전시됐다. 그중 2023년 11월 기준 런던에서는 전시 티켓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전시는 국내외를 아우른 화제성 덕분에 2023년 12월 광화문의 전시관 '갤러리 광화'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호평을 받았던 콘텐츠와 새로이 구성된 콘텐츠 등 총 22종의 콘텐츠가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 곳곳에서 느끼는 우리나라의 색채

전시에서는 '한국의 미'를 찾아볼 수 있다. 처음 입구를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울을 주제로 한 화려한 미디어아트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우리나라의 궁궐, 무궁화, 해치 등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표현됐다. 그 옆으로는 서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한강이 눈에 들어온다. 이때 관람객들이 적은 메시지가 한강 위로 흐르는데, 이는 관람객이 전시와 서울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 있도록 연출한 장치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한다. 화면 속에 떠오르는 다양한 언어들 속에서도 한글은 그 고유성을 뽐내고 있다. 또한, 12지신은 친근하고도 귀여운 모습으로 등장해 관람객의 운세를 점쳐주기도 한다. 마지막 공간에서는 서울의 역사를 벽면 가득히 만나볼 수 있다. 궁궐과 전통 가옥이 있던 과거와 형형색색 네온사인 이 반짝이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까지, 20분간 펼쳐지는 영상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출구는 전통적으로 문을 지키는 신으로 알려진 '울루'가



- ① 딜라이트 서울 전시가 3년 만에 돌아왔다
- ② 2024 딜라이트 서울 전시장 입구
- ③ 한강으로 떠내려 보낼 마음속 메시지를 적고 있다
- ④ 전시장에서 상영되는 미디어아트 모습



- ① 관람객의 메시지가 배경이 된 포토존
- ② 미디어아트와 관람객의 사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 ③ 런던의 모습이 런던 전시를 기념하며 상영되고 있다
- ④ 한글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지키는 상상의 문으로 표현됐다. 문을 열고 나가면 입장 전과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는 일종의 상상력을 부여한다.

### 추억을 심어주는 체험 이벤트

전시에는 여러 체험 이벤트들이 존재한다. 입장 전 바코드가 새겨진 카드를 지급받고, 체험 장소에서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는 전시의 즐거운 순간을 남길 수 있는 촬영 이벤트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미디어아트와 조화를 이루고, 올 한 해 소망과 계획도 사진에 담을 수 있다. 특히, 8번째 공간인 'With Me ver.2'에서는 커다란 거울이 있는 방 안에 미디어아트 속 본인의 모습이 1분간 상영된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추억의 공간이 되기 적절하다. 퇴장 전에는 관람하는 동안 촬영한 3개의 사진을 모아볼 수 있는데, 전시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화 또한 가능하다. 머리로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소중한 기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이곳, 2024 딜라이트 서울의 매력이다. 📷

#### 전시 정보

##### '2024 딜라이트 서울'

**일정:** 2023.12.15.~2024.4.30.(화·수 휴무)

**시간:** 10:00~19:30(입장 마감 19:00)

**위치:**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103 갤러리광화

**입장료:** 10,000원

